

시간의 날

‘문화예술섬 제주’ 도정의 세밀하지 못한 셈법 아쉬워

섬 대표하는 3개의 미술축제 축소·연기 예산 등 ‘적극적 행정지원’이 성패 좌우

‘2020 아트 페스타 인 제주’ 준비가 한창이다. 제주국 제관악제, 제주비엔날레 등 올해 열리기로 한 대형 국제행사도 아트페스타 축소·연기되면서 ‘2020 아트 페스타 인 제주’에 쏟아지는 관심과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2020 아트 페스타 인 제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제주시라는 지역 행정의 관심과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이 먼저 노력했다는 점이다. 지역 미술 전문가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 제주형 플랫폼이 아티스트의 전국망을 안고 달릴 수 있게 회전축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달 공간 아트페어를 방문한 문경시 도시재생센터 직원들.

한 사업을 위해 예산 정액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타 도시의 아트페어 사업과 관련한 행정 편의를 살펴보면 아트페어 사업 보조율이 7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특히 문체부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중복 수혜가 불가한 것은 제주도가 유일하다는 점, 문화예산을 인력으로 살피지 않고 재단지원 예산으로 싸늘이해 간 제주도정의 행정주의적 편익은 적극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예산 지원 부족이라는 지역 행정의 대타일하지 못한 셈법이 올해 아트페어를 쉬기로 한 결정적 이유라는 점은 무척 아쉽다.

9월이면 2021년 대형 문화 행사 관련 예산 편성의 윤곽이 잡힌다. 민간이 자생적으로 투자해온 플랫폼들, 특히 제주비엔날레와 더불어 문화예술섬 제주의 자립기반의 토대마저 지역 행정이 외면한다면 코로나 인택트(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문화예술섬 제주의 미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재정 시민기자

‘손녀 나온 학교’ 재능기부 나선 할아버지 가치 높은 수산초 교목 전정 도맡아 진행

70대 할아버지가 손녀딸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교목 전정이라는 재능기부에 나서 화제다. 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성산읍 수산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교목인 소나무 전정을 실시했다. 수산초에 식재된 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되고 굵아치가 높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수산초는 올해 졸업한 이어나 학생의 할아버지인 이성모(72)씨가 학교 인근에서 분재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착안, 전정을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이씨는 평소에도 해당 소나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고, 손녀딸이 졸업한 학교이기도 했기 때문에 흔쾌히 전정에 나섰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성모 할아버지가 수산초등학교 교목인 소나무의 전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산초등학교 제공

이틀간 전정을 진행, 소나무 수령을 바로 잡았다. 수산초 관계자는 “학생들이 할아버지의 재능기부 정신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양범기자

‘제주어 연구 1세대’ 연암의 업적 조명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이사장 강영봉)는 이날 5월 오후 2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연암 현평호 선생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연암 현평호를 그리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제주어 연구 1세대인 현평호(1920~2004, 사진) 선생 탄생 100돌을 맞아 제주어 연구에 헌신한 그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연암의 삶’, 2부 ‘연암의 학문’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 ‘연암의 삶’에서는 제자인 강영봉 이사장의 ‘연암의 삶’, 김병택 제주대 명예교수의 ‘연암과의 추억’, 연암의 장남인 현천옥 변호사의 ‘아버지에 대한 회고’가 발표된다. 2부 ‘연암의 학문’에서는 음운(정승철 서울대 교수), 문법(강정희 한남대 명예교수), 어휘(김순자 제주학연구소장) 분야의 발표가 이어진다. 제주어연구소는 연암 탄생 100돌을 기념해 ‘되돌아본 세월’도 발간했다.



애월읍·화북동 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제주시는 올 상반기 26개 읍면동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에 애월읍(읍장 부대진·사진 왼쪽)·화북동(동장 김형석·사진)을 선정했다. 우수에는 한림읍·노형동·도두동, 장려에는 한경면·이도2동·건입동·삼양동·연동이 각각 뽑혔다. 상반기 선정은 현수막과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계고 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시는 선정된 읍면동에 최우수 각 50만원, 우수 각 30만원, 장려 각 22만원씩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도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전화시스템 운용실적을 평가해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농협에덕봉사회 복지시설 환경정비

제주농협에덕봉사회(회장 현창일)는 지난 1일 제주시 화북2동 제주에덕의 집에서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방역과 나무 전정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현창일 회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복지시설을 찾는 봉사활동이 중단돼 시설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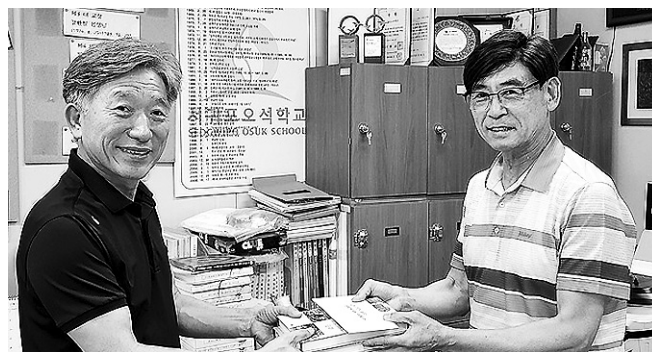
평화적십자봉사회 음식 나눔 봉사활동

평화적십자봉사회(회장 정경자)는 지난 2일 제주적십자사 맛나눔터에서 봉사원 15명이 참여해 희망장자 결연 90가구에 오이소박이와 오이지 130kg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날 만든 음식은 시각장애인,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도내 취약계층 90가구에 전달됐다. 정경자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오진 추자중 교장 출판 수익금 기부

서귀포 오석학교(교장 양봉관)는 지난달 31일 김오진 전 교사가 최근 발간한 저서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 기후와 문화’ 인쇄와 수익금 전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오진 씨는 현재 추자중학교 교장으로, 38년 전인 대학 시절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서귀포 지역의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오석학교에서 교사로 야학 봉사를 펼쳤다.



그랜드 보청기 난청 해녀에 보청기 기부

그랜드 보청기(원장 강철)는 지난달 31일 오랜 해녀생활로 난청을 겪고 있는 고숙자 해녀에게 290만원 상당의 스타키 보청기(대표 심삼돈)를 기부했다. 강철 원장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 문화를 존중하고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흥119센터 고가사다리차 조작 훈련

서귀포소방서 동흥119센터(센터장 이창한)는 3일 센터에서 고층건물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고가사다리차 조작 능력 숙달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생태연구회 환경캠페인 전개

(사)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회장 강기오) 회원 70여명은 지난 2일 표선면 성음리 백악이 오름 주변에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식물의 제거 작업과 함께 현장 교육 및 환경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수료식 개최

제주학생문화원(원장 임연숙)은 지난달 31일 학업중단 위기에 있던 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울림학교’를 마무리했다. 어울림학교에서 학생들은 농업용 중장비 실습, 제과제빵, 피아노, 목공 등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제주문화도시협의회 네트워크 1차 회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지난달 30일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광준), 제주시문화도시센터(센터장 김병수)와 제주문화도시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라게시판

▶이희순씨 별세, 강태희씨 부인상, 강호준(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창윤(한국농어촌공사 차장), 창주(진술창호 대표), 미자, 복용(前 제주전파관리소)씨 모친상, 김금숙(우도중학교 교사), 문혜경(노형이비인후과의원), 오복선(前 제주지방경찰청)씨 시모상, 박혁진(前 제주동부경찰서장)씨 빙모상. ▷일포=8월 4일(화) ▷발인일시 및 장소=8월 5일(수) 오전 8시 30분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지=양지공원 ▷천왕사 ▷연락처=강호준(010-3696-0716), 강창

운(010-2686-0135), 강창주(010-2699-1390), 강미자(010-5768-1015), 강복용(010-2682-1087), 김금숙(010-9838-0716), 문혜경(010-2492-8773), 오복선(010-6496-3681), 박혁진(010-8664-3244) ▶박재철(前 중앙여중교사)씨 별세, 강인숙씨 남편상, 박승민, 단비, 샘이, 빛나씨 부친상, 진민상, 허승민씨 빙부상. ▷일포=8월 3일(월) ▷발인일시 및 장소=8월 4일(화) 오전 8시 30분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지=김녕입산봉선영 ▷연락처=강인숙(010-2697-5234), 박승민(010-4924-1666), 박단비(010-4943-3204)

알림 ▶‘오름 위에 부는 바람’ 백광의 초대전 ▷전시기간=8월 1일(토)~9월 25일(금) ▷전시 오픈닝=8월 1일(토) 오후 3시 ▷장소=한라일보 1층 갤러리ED ▷문의=☎064-750-2543 모집 ▶제22회 ‘아름다운화장실 대賞’ 공모 ▷공모부문=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공중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중화장실(학교·군부대 포함), 민간화장실-전국 민간

화장실(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민간화장실)) ▷응모자격=응모자만일 기준으로 신축(중·개축 포함)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화장실 ▷응모기간=7월 11일(토)~8월 11일(화) ▷접수처=화장실문화시민연대(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중정리시은 B 02호·우 03741) ▷접수방법=우편접수 후 메일(rest4242@empas.com) 송부 ▷제출서류=신청공문 1부 및 신청서 2부 ▷수상장 발표=10월 중, 신문게재 및 개별통보 ▷문의=제주시 환경관리과(☎728-2191~2192)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 ▷기간=6월 17일~12월 31일 ▷대상= 모든 시민, 공직자 ▷공모주제=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쓰레기, 교통 등 제주시 현안 해결방안, 그의 시정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의 제안 ▷신청방법=제주시 홈페이지 접속→시민참여→365일 아이디어뱅크, 이메일 접수(ferred99@korea.kr),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상내역=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5명(각 20만원) ▷문의=제주시 기획예산과(☎728-2213)

화촉란 유료입니다
문의 750-2828 / FAX 752-7448
732-5552 / FAX 732-5559